

# 奎章閣 所藏本 ‘純元王后 한글 편지’의 고찰

이 승 희\*

1. 서론
2. 서지 사항
3. 순원왕후 한글 편지의 내용
4. 국어학적 고찰
5. 결론

## 1. 서론

역사 연구에서 일차적인 자료가 되는 것은 주로 공식적인 기록, 그 중에서도 刊行本이 되기 마련이다. 반면 대개 필사본으로 남아 있는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기록-예를 들어 일기나 편지 등-은 刊行本이 보여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보조적인 자료의 역할을 주로 맡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국어사 연구에서는 필사본 자료의 연대가 확실하지 않고 표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이를 본격적인 연구 자료로 삼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근대국어 시기에 존재하는 필사본 소설 같은 자료들은 그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대국어 연구의 자료로 이용되지 못했다. 다만 쓰인 시기나 필자가 비교적 분명한 한글편지들 중 일부가 연구 자료로 이용되었는데,<sup>1)</sup>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로 무덤 출토 한글 편지들이 많이 소개되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해독과 주석 작업이 있었다. 필사본 자료 중에서도 편지는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이다.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인의 삶이나 일상의 모습, 그리고 나아가 그 시대의 모습까지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한글 편지는 편지글 특유의 정형화된 표현이나 상투적인 표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정제된 간본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구어체 표현이나 방언, 일상 언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어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한글 편지 두 종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바로 조선 시대 純祖의 비인 純元王后 金氏가 쓴 한글 편지들이다. 이 편지들은 조선 후기, 이른바 세도정치 시기에 말 그대로 막후에서 왕실을 이끌어간 순원왕후 김씨가 자신의 친정 식구들-권력의 핵심이었던 안동 김씨의 주요 인물들-에게 보낸 한글 편지이다. 이 편지의 존재는

\* 필자 : 한신대 강사

1) 대표적인 경우로, 송강 정철의 어머니 안씨의 한글 편지에 나오는 구절인 ‘비가세니러셔’는 주격조사 ‘가’가 등장한 최초의 예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의 해석이 확실하지 않아서 여기서의 ‘가’가 주격조사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sup>2)</sup> 아직 자세히 소개된 적은 없다. 역사 연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편지들은 19세기 중엽 절정에 이르렀던 세도정치의 이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자료이다. 편지의 내용을 통해 순원왕후와 세도정치의 중심에 있던 안동 김씨 집안이 어떻게 당시의 정국을 주도했는지 그 단면을 엿볼 수 있고, 한 개인의 역사에 초점을 둔다면, 통치를 위한 교육을 받지 않은 한 개인, 그것도 여성이 뜻하지 않게 정권을 잡게 되면서 겪는 심적 고뇌를 엿볼 수 있다. 국어학 연구의 측면에서도 이 편지들은 근대국어 시기의 마지막 단계인 19세기 국어의 모습, 특히 궁중 및 사대부 계층에서 사용된 언어와 편지글 특유의 문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연대가 확실하고 편지의 양이 비교적 많아 다양한 언어적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도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 2. 서지 사항

### 2.1. 《純元王后御筆封書》의 서지

규장각에 소장된 2종의 순원왕후 한글 편지 중 《純元王后御筆封書》<sup>3)</sup>(奎 27785)는 총 33매로서, 편지들이 비교적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봉투에 넣어 한 번 더 종이로 쓴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편지의 크기는 12.5×96cm인 것에서 26×40.3cm인 것까지 제각각이다. 봉투의 크기는 대체로 23×5cm 가량인데, 14~16cm 정도로 접혀서 겹 종이에 싸여 있다.

봉투를 쓴 겹 종이에 주로 수신인이 거주하는 동네 이름이 적혀 있으나, 그냥 ‘봉서’라고 적힌 것도 있고 관직명이나 수신인의 이름이 적힌 경우도 있다.<sup>4)</sup> 또한 겹 종이로 편지를 쓴 후에는 원형 또는 정방형 도장으로 봉인을 한 것이 많다. 겹 종이에 적힌 동네 이름은, ‘광양’이라 되어 있는 것(일련번호 119993)을 제외하면 주로 ‘이문니(혹은 니문니, 이문안)’와 ‘던동’이고, ‘스동’이라 된 것도 몇 있으며, ‘계동(혹은 삼계동?)’이라 된 것도 하나 있다. 여기에서 ‘이문니’ 혹은 ‘이문안’은 金興根의 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글학회에서 펴낸 《한국지명총람》에서는 종로구에 있는 ‘태화관 터’를 설명하면서 ‘이 곳은 원래 이문동, 또는 이문안이라 했으며 … 김흥근(金興根)이 살았고’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 따르면 ‘이문안(里門-)’은 지금의 인사동, 종로2가, 공평동에 걸쳐 있는 동네이고

2) 김일근(1986)에서 <순원왕후어필>이 소개되었으나 그 연대나 수신인 추정이 잘못되었고, <순원왕후어필봉서>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이 소개되었다.

3) 표제와 목록에 《純元王后御筆封書》라 되어 있으나 ‘御筆’이란 말은 왕이 쓴 것에 대해서만 쓰는 표현이므로 이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 표제는 후대에 잘못 제첨된 것으로 보인다.

4) 간혹 편지의 봉투나 겹 종이가 다른 편지의 것과 뒤바뀐 경우도 있는 듯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동(典洞)’은 견지동, 공평동, 종로2가에 걸쳐 있는 동네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문안, 이문안’과 ‘던동’은 같은 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5)</sup> 한편 ‘스동(寺洞)’은 월각사(圓覺寺) 부근에 있던 동네로서 지금의 인사동, 종로 2가 부근인데, 이 곳이 누구의 집을 가리키는지, ‘스동’과 ‘이문안’ 또는 ‘던동’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분명하지 않다.<sup>6)</sup>

편지 봉투에는 수신인의 관직명 혹은 이름이 써어 있다. 이름이 적힌 편지는 ‘기경 기탁’이라 되어 있는 것(일련번호 119993)과 ‘범초 즉남’이라 되어 있는 것(일련번호 120007) 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관직명이 적혀 있다. 봉투에 적힌 관직명은 ‘던교’, ‘판서’, ‘니 판’, ‘판부스’, ‘대신’의 다섯 가지이다. 봉투의 관직명을 토대로 수신인을 추정할 수 있으나, 관직명이 다르다고 해서 수신인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관직명이 같아도 수신인이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직명과 편지 내용, 사용된 경어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수신인을 밝혀야 한다.

편지의 내용은 크게 개인 혹은 집안과 관련된 것과 조정 및 왕실과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편지들은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집안 식구들의 건강을 염려한 것, 집안의 대소사와 관련하여 축하나 위로를 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후자의 경우는 조정 내의 논란이 되는 일이나 왕실의 의례와 관련하여 지문을 구하거나 당부를 하는 내용 혹은 아직 조정을 이끌 역량이 없는 임금에 대한 염려 등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편지들은 보통 이러한 개인적인 내용과 공적인 내용 두 가지 모두를 담고 있는데, 이는 편지의 수신인들이 정치의 핵심 인물이어서 그들의 일상 생활 자체가 정치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편지가 쓰인 시기가 분명히 밝혀져 있는 것은 ‘무신팔월년칠일’이라 명시된 편지(일련번호 119993) 하나뿐이므로 다른 편지들은 그 내용을 통해 쓰인 시기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편지의 내용으로 추정해 보건대 <奎 27785>의 편지들은 대략 1840년대 초부터 1850년대 중반 사이에 쓰인 것이며, 그 중에서도 김홍근이 유배될 무렵인 1848년부터 철종이 즉위한 후인 1850년 사이에 쓰인 편지가 가장 많다. 한편 그 시기를 정확히 알아내기 어려운 편지들도 여럿 있는데, 특히 ‘호쇼서’체를 사용하고 있는 ‘판부스’에게 보낸 편지들은 대체로 1850년대에 쓰인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시기는 알기 어렵다.

<奎 27785>의 편지들은 여러 사람에게 보낸 것인데, 확실하게 수신인으로 밝혀진 사람은 순원왕후의 재종동생인 金興根(字는 起卿)과 그 아들 金炳德, 김홍근의 조카인 金炳滄(字는

5) 한편 <한국지명총람>에서는 순화궁의 里門이 있었기 때문에 이문안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나, 시기상으로 보아 김홍근이 살던 때가 순화궁을 세운 시기보다 앞서므로 이러한 설명은 잘못이다.

6) ‘이문안’과 ‘던동’, ‘스동’이 모두 같은 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이런 가정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듯하다. ‘이문안’과 ‘던동’이 같은 집을 가리킨다고 본 것은 수신인이 동일한 경우가 있는 데다가 ‘이문안’이 구체적인 洞名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던동’과 ‘스동’은 각각 행정구역상의 洞名이라 생각되므로 이 두 지명이 같은 집을 가리키는 데 쓰였다고 하기가 어렵다.

範初)이다. ‘기경 기탁’ (119993), ‘병덕이’ (120001), ‘범초 즉남’ (120007)과 같이 봉투나 겉 종이에 이름과 字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수신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세 편지 외에는 봉투에 수신인의 이름 대신 관직명이 쓰여 있고, 겉 종이에 동네 이름이나 관직명이 적혀 있기 때문에 수신인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나, 편지의 내용과 봉투의 관직명, 사용된 경어법 등을 참고로 수신인을 추정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퇴교(혹은 대교)’에게 보낸 네 통의 편지들(일련번호 119983, 119988, 119994, 120000)은 모두 ‘하라’체가 사용되었으므로 순원왕후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 수신인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편지의 내용을 보면 김홍근이 유배될 당시 그 아들에게 보낸 것임이 드러나므로 1848년에 규장각 대교(待敎)였던 김병덕이 수신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추정한 결과 <奎 27785>의 편지들은 김병덕에게 보낸 것이 5매, 김병주에게 보낸 것이 1매이고, 그 외의 편지는 주로 김홍근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봉투가 없거나 내용상으로 수신인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편지들도 많은데, 대체로 김홍근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단언할 수는 없다.

## 2.2. <純元王后御筆>의 서지

<純元王后御筆>(古貴 2410-21)은 총 25매의 편지가 尹淳의 서첩에 붙여져 소장되어 있다. 尹淳의 서첩은 2帖으로 되어 있는데, 권1에 16매, 권2에 9매의 편지를 붙여 놓았다. 편지의 크기는 비교적 비슷한 편으로 23×36.5cm 정도이다.

봉투를 찢던 종이도 전하나 그 수가 매우 적어서 여섯 장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奎 27785>에서는 겉 종이에 수신인이 거주하는 동네 이름이 주로 적혀 있었으나, <古貴 2410-21>의 경우는 대개 ‘봉서’라고만 쓰여 있고, 동네 이름이 적힌 경우는 ‘판서 스동’이라 되어 있는 편지 하나뿐이다.

수신인의 관직명이 적힌 봉투도 서첩에 함께 붙여져 전하고 있는데, 수신인의 이름이 적힌 것은 없고 모두 관직명이 적혀 있다. 봉투에는 ‘좌합’과 ‘좌상’, ‘대신’, ‘판서’, ‘참판’, ‘부스’라는 관직명이 적혀 있는데, ‘좌합(좌상)’과 ‘판서’가 주를 이루며, ‘부스’, ‘대신’, ‘참판’이라 적힌 것은 각각 한 매씩이다.

편지의 내용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에서부터 집안 일과 관련하여 축하나 위로, 애통한 심정을 전한 것, 집안 식구들에 대한 책망과 경계, 노여움을 전한 것, 왕실의 의례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한 것, 철종에 대한 걱정, 임금을 잘 보좌하라고 당부한 것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편지 내용에 드러나 있는 왕실 의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토대로 편지가 쓰인 시기를 추정해 보면, 대략 1830년대 말에서 1850년대 초에 쓰인 것으로 생각된다. 연대가 확실한

편지들을 보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837년 10월에 쓰였고, 가장 늦은 시기의 것은 1852년 1월에 쓰였다. 연대를 파악할 수 없는 편지도 몇 있는데, 이들도 1837년에서 1852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생각된다.

〈古貴 2410-21〉에는 수신인의 이름이 명기된 편지가 없다. 따라서 봉투에 적힌 관직명과 편지 내용, 시기, 사용된 경어법 등을 고려하여 수신인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편지의 수신인은 재종동생인 金興根인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단순히 안부를 묻는 편지여서 연대가 분명하지 않고 수신인도 분명히 밝힐 수 없는 편지가 몇 있지만, 대부분의 편지는 편지에 언급된 의례나 사건, 상황 등과 ‘부스’, ‘참판’, ‘판서’, ‘좌합’이라는 관직명을 통해 수신인이 김홍근임을 알 수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이 두 종의 한글 편지 외에도 순원왕후가 여러 사람에게 보낸 상당히 많은 한글 편지가 남아 있다. 김일근(1986)에 따르면 출가한 세 명의 공주들에게 보낸 편지와<sup>7)</sup> 동생인 좌근에게 보낸 편지도 각각의 집안에 전하고 있다고 한다.

### 3. 순원왕후 한글 편지의 내용

#### 3.1. 편지의 역사적 배경

朝鮮 純祖의 妃인 純元王后 金氏(1789~1857)는 正祖 때의 문신 金祖淳(1765~1832)의 딸로서 1800년(정조 24년)에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김조순은 나중에 정조의 사당에 배향되었으며, 정조의 큰 신임을 받았으나 권력에 그리 집착했던 인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sup>8)</sup> 그러나 순원왕후의 형제들(道根,<sup>9)</sup> 元根, 左根)과 재종형제들(순원왕후의 堂叔인 金明淳의 아들인 弘根, 應根, 興根)은 1834년 순조의 승하 후 나이 어린 헌종 대신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맡게 되면서부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권력의 핵심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 중에서 金元根(1786~1832)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金應根(1793~1863)은 주로 지방의 수령으로 봉직하여 중앙 정계에 나서지 못했지만, 金道根(1785~1840)은 평안도 관찰사, 병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두루 거쳤고, 金弘根(1788~1842)은 1841년 좌의정에까지 올랐다. 金興根(1796~1870)은 1841년 형조판서가 된 것을 시작으로 六曹의 판서를 다 지내고 1851년에 좌의정, 1852년에 영의정이 되었다가 판중추부사로 물러났으며, 金左根

7) 東寧尉 집안에 전하던 편지는 현재 영남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김일근(1986)에서는 東寧尉 집안에서 전하는 편지 중 김완진 소장본이 있는 것으로 밝혀 놓았는데, 김완진 교수에 따르면, 이 편지는 공주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동생인 김좌근에게 보낸 것이라고 한다.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4권 902~903쪽.

9) 김조순의 장남인 유근은 후사가 없는 堂叔(金龍淳)의 양자로 들어갔다.

(1797~1869)은 다소 늦게 1838년 문과에 급제한 이후 한성부판윤, 六曹의 판서 등을 두루 거치면서 철종 때에는 세 번이나 영의정에 보직되었다. 순원왕후가 왕실의 의례라든가 조정 내에서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에 대해 줄곧 자신의 형제나 재종형제들에게 의논하여 결정하곤 했기 때문에 결국 나라의 절대 권력은 순원왕후의 형제 및 재종형제들의 손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48년(헌종 14년) 김홍근이 탄핵을 받아 유배를 가게 되면서 이들의 독주는 잠시 주춤한 듯했으나, 바로 그 다음 해인 1849년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면서 상황은 다시 원상복귀하였다. 신안동 김씨 일가는 유력한 왕위계승 후보인이 하원 대신 아무것도 모르는 원범을 철종으로 추대하였고, 순원왕후가 또다시 수렴청정을 하게 되어 그들의 세도정치는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1800년대 초부터 1863년 철종이 승하하고 고종이 즉위하여 대원군의 정치가 시작될 때까지 신안동 김씨 일문의 세도정치는 약 6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 순원왕후의 한글 편지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 있는 결정 과정 및 주변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 3.2. 내용 소개

본 장에서는 각 편지의 수신인, 쓰인 시기,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奎 27785>와 <古貴 2410-21> 각각을 사용된 경어법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사용한 경어법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다른 수신인에게 쓴 편지일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물론 결과가 항상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다음, 편지의 수신인과 편지가 쓰인 시기 순으로 편지를 정리하였는데, 앞서 밝혔듯이 수신인의 이름이 명시된 편지는 3매, 쓰인 시기가 명시된 편지는 1매뿐이므로 나머지 편지의 수신인과 쓰인 시기는 편지의 내용과 편지 봉투에 적힌 관직명, 그리고 사용된 경어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시기가 비슷할 때에는 봉투의 관직명이나 겹 종이에 적힌 동네의 이름이 같은 것을 우선으로 하여 정리하였고, 편지의 수신인 및 시기를 추정하는 데 근거가 되는 사건들과 특기할 만한 서지 사항은 비고란에 따로 제시하였다. 한편 각 편지의 일련번호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奎 27785>의 경우는 각 편지에 분류번호와 순번이 따로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분류번호를 제시하기로 하고,<sup>10)</sup> <古貴 2410-21>의 경우는 기존에 각 편지에 번호를 매긴 것이 없으므로 서첩에 붙은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여 제시하되, 서첩 권1에 붙은 것은 1-1, 1-2와 같이, 권2에 붙은 것은 2-1, 2-2와 같이 번호를 붙였다.

10) 분류번호는 중간에 번호가 빠진 것도 있고(119985와 119995가 없음) 자리수가 많아서 제시하기에 불편하기는 하지만, 한 번호에 두 편지가 속한 경우-예를 들어 119981(1)·(2)-를 보여 주기에 편리하므로 이를 선택하였다. 두 편지가 하나의 분류번호를 갖는 경우는 내용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함께 보낸 편지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3.2.1. &lt;純元王后御筆封書&gt;

## 3.2.1.1. ‘하라’ 체 편지

<奎 27785>는 총 33매인데, 이 중에서 아주낮춤인 ‘하라’ 체가 사용된 편지는 6매이고, 이 중에 ‘범초 즉납’, ‘병덕이’ 와 같이 수신인의 이름과 자가 명시되어 있는 편지가 1매씩 있다. ‘범초(範初)’는 金興根의 조카인 金炳滄이며, ‘병덕이’는 金興根의 아들인 金炳德이다. 편지의 내용은 1848년 8월 金興根이 광양으로 유배된 일, 그리고 유배에서 돌아오게 된 일을 이야기한 것이 5매인데, 이에 따라 편지의 연대가 비교적 분명히 드러난다. 수신인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4매의 편지는 봉투에 ‘대교’ 혹은 ‘디교’라 적혀 있는데, 1848년~1849년에 金炳德이 규장각 대교(待敎)였으므로 이 편지들은 그에게 보낸 편지임을 알 수 있다. 그 시기를 알기 어려운 편지도 하나 있는데, 120001은 집안의 喪事와 관련한 위로를 전한 편지로서 봉투가 없어서 김병덕의 관직명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다. 한편, 김병덕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겉 종이에 ‘스동정승덕’이라 적힌 것이 하나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김홍근의 집은 ‘이문안’ 혹은 ‘년동’에 있었으므로 왜 ‘스동’이라 했는지 알 수 없다. 봉투의 크기에 비해 겉 종이가 큰 것으로 보아 겉 종이가 바뀌었거나 혹은 ‘스동’에 사는 다른 일가에 편지를 하면서 함께 전하도록 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일련번호	수신인	시기	편지 내용	봉투	겉종이	비고
120007	金炳滄	1848년 8월	수신인의 삼촌(김홍근)이 유배를 가게 된 일. 유배지의 水土에 대한 걱정. 소식이 있는지 물음.	범초 즉납	년동 판서	1848년(헌종14년) 김홍근이 전남 광양으로 유배됨.
12000	金炳德	1848년 8월	수신인의 아버지(김홍근)가 유배를 가게 되니 안타까움. 곧 풀려날 것이라 위로.	디교 기랍	년동, 리문안대신	겉종이가 들임.
119994	〃	1848년 혹은 1849년	수신인이 유배 간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자 그 안부를 묻고 위로함.	디교 즉면	스동정승덕	겉 종이와 봉투의 크기가 맞지 않음.
119988	〃	1849년 겨울	수신인의 아버지가 은사를 입어 유배지에서 돌아오게 됨을 축하함.	디교 즉면	디교	1849년 철종 즉위 후 김홍근이 유배에서 풀려남.
119983	〃	1849년 12월	수신인의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옴을 치하. 過歲 인사.	대교 즉면	대교 즉면	〃
120001	〃	?	집안의 喪事를 만나 안타까운 심정과 위로를 전함.	없음	병덕이	언제, 어떠한 喪事인지 분명치 않음.

## 3.2.1.2. ‘호소’ 체 편지

〈奎 27785〉에서 ‘호소’ 체를 사용한 편지는 모두 17매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봉투에 ‘기경(起卿- 金興根의 字) 기탁’이라 되어 있는 119993에는 편지 말미에 ‘무신(1848년) 팔월년칠일’이라고 편지를 쓴 날짜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이처럼 날짜를 명시한 것은 순원왕후 한글 편지 중 이것이 유일하다. 그 밖에도 쓰인 시기를 정확히 밝힐 수 있는 편지들이 있는데, 편지 본문 중에 언급된 여러 사건 및 의례들, 예를 들어 천릉(遷陵) 때 임금이 수여(隨輦: 輦을 隨從하는 것)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라든가 경우궁(景祐宮: 純祖의 親母인 綏嬪 朴氏) 가례 회년, 효정전(孝定殿: 승하한 憲宗을 가리킴)의 연사(練祀) 등이 연대 추정의 증거가 된다. 또한 대략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편지도 있는데, 새 임금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근심하고 임금을 잘 보좌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편지는 대체로 철종이 즉위하고서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던 시기인 1849년 말~1850년 사이에 쓰인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다른 편지와 내용상 연결되는 것을 통해 시기를 추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19982(2)에 있는 閔達鏞과 영부사의 이야기는 1847년 1월 무렵에 쓰인 것이 확실한 120005에도 보이는데, 내용으로 보아 119982(2)가 더 앞서는 듯하므로 이 편지의 연대는 1846년 겨울 무렵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도 시기를 추정할 수 없는 편지 역시 몇 있다.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편지들이 대개 1841년 경~1850년 경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편지의 수신인으로 가장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이름이 밝혀진 金興根인데, 봉투에 ‘판서’나 ‘니판’이라 적혀 있고 겉 종이에 ‘던동’ 혹은 ‘이문니’라 되어 있는 편지들은 모두 그에게 보낸 편지로 추정된다. 김홍근은 1842년 형조판서가 된 이래로 공조,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판서를 두루 거쳤으며,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문안’ 혹은 ‘이문니’, 그리고 ‘던동’은 바로 김홍근의 집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sup>11)</sup> 김홍근 외에 1840년대 당시 순원왕후가 예사나츨춤인 ‘호소’ 체를 사용할 만한, 그리고 집안 일이나 조정 일을 의논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를 지닌 일가 사람으로는 친동생인 金左根도 있었는데,<sup>12)</sup> 그렇다면 겉 종이에 ‘봉서’라고만 되어 있거나 ‘스동 판서’라 써어 있는 편지 중에는 김홍근이 아닌 김좌근에게 보낸 편지가 있을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지 중에서도 지방에서 봉직을 하고 승자(陞資)하여 돌아왔다는 내용(119992)이라든가, 조정에서 중형제가 동심하여 대소사를 의논하라고 당부하는 내용(120004(1))을 볼 수 있는 것은 수신인이

11) 겉 종이나 봉투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수신인을 추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반드시 편지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봉투의 판직명인이나 겉 종이의 동네 이름을 함께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12) 또 다른 재종동생인 金應根은 줄곧 지방 수령으로 봉직했으므로 이들 편지의 수신인이라 할 수 없고, 순원왕후의 조카들은 이 당시 아직 벼슬에 나가지 않거나 미관에 머물러 있을 때라 집안 일이나 조정 일을 의논할 만한 상대가 되지 못했다. 또한 1840년대 편지에서 조카들에게 ‘하라’ 체를 사용했음은 앞에서 이미 보았다.

김홍근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奎 27785>에서 '호소' 체를 사용한 편지들이 모두 김홍근에게 보낸 것이리라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관직명이나 지명, 시기, 편지 내용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인 추정을 보류하기로 한다.

일련번호	수신인	시기	편지 내용	봉투	겉종이	비고
1119992	김홍근	1842년 8월 경	봉직을 잘하고 돌아옴 치하. 오라버님(金弘根?)의 병환을 염려하고 수신인의 건강도 걱정.	판서 기랍	봉서	1842년 8월 평안도관찰사였던 김홍근이 형조판서가 됨.
120008	김홍근?	1842년 12월?	오라버님(金弘根?) 발인이 되니 슬프고 안타까움.	판서 기랍	봉서	
119998	김홍근	1846년 윤5월	편지 보고 그대로 하겠으나 그 과정이 불만스러움. 대비전에서 임금의 隨攀하는 것을 말려야 한다는 편지를 보내와 그것을 처분한 일.	니판 니판 즉납	봉서,	1846년(헌종12년) 윤5월 綾陵의 遷陵 때 헌종이 수여하는 것을 말리는 하교를 빈청에 내림.
119996	김홍근	1846년 윤5월	논란이 많던 천릉이 되니 다행함. 임금이 수여하는 일로 정청까지 된 일.	판서 입납	면동 입납	1846년(헌종12년) 윤5월 수릉을 천릉.
119982 (1)	김홍근?	1846년 12월?	問病. 판서(김좌근?)의 병이 적이 나왔다는 것. 過歲 인사.	없음	봉서	
119982 (2)	?	1846년 12월?	민달용의 일을 의논함. 안 좋은 소문과 원망이 많으니 괴로움. 영부사의 병이 어떠 한지 물음.	"	"	
120005	?	1847년 1월	심신이 지친 것을 위로. 임금께 말을 할 때 가려서 할 것을 당부. 임금의 성품을 설명. 영부사와 민달용의 일. 경우궁 가례 회년에 관한 이야기.	없음	봉서	1847년 2월 경우궁 가례 회년을 맞아 작헌례를 행함. ※ '판부스 근봉'이라 적힌 봉투는 다른 편지의 것일 듯 함.
119993	김홍근	1848년	먼 곳에서 건강히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위로함.	기경 기탁	봉서 광양	날짜와 수신인 명시. 1848년 김홍근이 전남 광양으로 유배됨.
119990	?	1849년 6월 경	헌종 승하로 애통한 심정. 새로 철종을 옹위하였으나 배운 것이 없어 근심스러움. 나라 일을 걱정함.	판서 기탁	판부스	

일련번호	수신인	시기	편지 내용	봉투	겉종이	비고
119986	김홍근	1849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축하함.	판서	던동	1849년 철종이 즉위한 후 김홍근이 유배에서 풀려남.
119981 (2)	김홍근	1850년 1월?	진강을 하게 되니 기쁨. 새 임금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글만 읽히려니 애처로운 마음도 들. 진강 때 임금과 수신인 간의 대화를 전해 들은 것 등.	판서 입납	수년동사랑	편지 끝 부분이 순원왕후가 철종에게 ‘-호쇼셔’라 말한 데에서 끝났음. 그 뒷부분이 119981(1)인 듯함.
119981 (1)	김홍근	1850년	철종 비 간택에 관한 내용. 이번에는 안동 김씨 가문에서 택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밝히고 의견을 물음.	없음	이문너	편지 첫머리가 ‘호엿너’로 시작되는데, 119981(2)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됨.
119991	김홍근	1850년 6월	효정전(헌종) 연사가 지나 새삼 슬픔. 입시 때 보았으나 말 한마디 못해 서운함.	판서 봉장	던동 즉면	1850년(철종1년) 6월 효정전 연제(練祭)를 지냄.
120004 (2)	김홍근?	1850년 경	답札을 보고 반가우나 건강이 염려스러움. 자신의 안부를 전함.	없음	수동 판서	‘별지(別紙) 보소’로 끝맺은 짧은 안부 편지. ‘별지’는 120004(1)을 가리키는 듯함.
120004 (1)	김홍근	1850년 경	철종 즉위 후 걱정이 많으니 조정에서 종형제가 동심하여 대소사를 의논하여 잘 해 줄 것을 당부.	판서 입납	없음	
119989	?	?	어떠한 일에 대한 불만스러움.	판서	수동 판서	
120010	김홍근?	?	초(草)를 잡아 보내니 보고 고쳐 달라는 부탁.	판서 기탁	던동	

### 3.2.1.3. ‘호쇼셔’ 체 편지

〈奎 27785〉에서 수신인 및 시기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호쇼셔’ 체를 사용한 10매의 편지이다. 봉투에 적힌 관직명은 ‘대신’이라 된 것이 2매이고 나머지는 모두 ‘판부스’라 되어 있다. 편지 중에서 120001, 119999, 120003, 119987(1)은 각각 金應根의 아들 金炳始의 대과 급제, 曹夏望의 문집을 둘러싼 탄핵, 洪隣漢의 복권 문제, 綏陵, 仁陵, 徽慶園의 천봉 문제 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편지가 쓰인 1854년과 1855년에 判府事였던 인물이 수신인일 텐데, 기록을 보면 金興根이 이 시기에 판부사였음을 알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제시했던 1850년 경의 편지에서는 김홍근에게 ‘호소’체를 사용하였는데, 똑같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에

일련번호	수신인	시기	편지 내용	봉투	겉종이	비고
1120001	김홍근	1854년	병시(炳始)가 대과에 급제하니 기쁨. 각자 자신이 맡은 직책에 충실해야 함 강조. 집안 아이들이 공검근신하기를 바랍.	대신 기탁	던동 대신	1854년(철종5년) 김홍근의 아들 김병시가 문과에 급제함.
119999	김홍근	1854년 11, 12월	영변(?)이 무사히 상경하니 다행함. 대궐 및 자신의 안부. 옥동 판서의 일이 안타까움. 조하망의 문집을 둘러싼 논란.	판부스 입납	이문안	1854년 11월, 12월 曹夏望의 문집 일로 그 자손 조석우를 탄핵하는 상소가 쇄도함.
120003	김홍근	1855년 1월	새해 인사. 승지의 안부 물음. 집의 대신이 흥인한의 말을 할 것인데 죄상을 씻어 줄 것 당부.	판부스 입납	봉서	1855년(철종6년) 4월 흥인한의 판작을 회복하라는 하교.
119987 (1)	김홍근	1855년	삼위 천봉과 관련하여 좋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 노심초사함.	판부스 입납	봉서	1855년 수릉, 인릉, 휘경원의 천릉 의논.
119987 (2)	"	?	안악(?)의 상변을 당해 애통함.	"	"	
120002	김홍근	?	새해인사. 덕담. 갑년을 맞은 영변의 소식을 물음. 대궐 소식. 자신이 쇠약해짐 한탄.	대신 기탁	던동	
120011	?	?	원로행역을 무사히 마칩을 치하. 안부 물음. 주갑 경일에 온 집안 식구들이 즐거웠을 일을 축하. 嶺南의 농사가 못 되었음 걱정.	판부스 기탁	수동	
120009	김홍근?	?	먼 길을 다녀온 안부를 물음. 자신이 결단한 일에 대해 소문이 좋지 않음 하소연. 상감이 어서 정사를 잘 볼 수 있기 기원.	판부스 입납	양호	녕변도 ... 근간 환감이 소년들 ㅈㅈ덕
119984	?	?	더위를 잘 보냈는지 안부 물음. 영변의 등정 및 회갑.	판부스 기탁	삼 계동 대신	녕변 등명, 회갑
120006	김홍근	?	都正(?) 집 喪事 위문.	판부스 입납	니문네	

서는 '호쇼셔' 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혹시 수신인이 김홍근이 아니라 순원왕후가 아주높임의 경어법을 사용해야 할 손윗사람 중의 누군가가 아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1854년, 1855년에는 이미 순원왕후의 숙부나 오라버니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였으므로 순원왕후의 손윗사람은 거의 없었다. 또한 편지를 쓴 사람이 순원왕후가 아닌 왕실의 다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

서 ‘호쇼셔’ 체를 사용하여 ‘판부스’ 혹은 ‘대신’에게 보낸 이 편지들은 역시 재종동생인 김홍근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경어법이 ‘호소’ 체에서 ‘호쇼셔’ 체로 바뀐 것은, 비록 자신이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이고 상대가 재종동생이라 할지라도, 議政府의 최고직인 영의정까지 거치고 나서 관직에서 물러나 판부사로 있는 이상 상대방을 높여서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 문제는 〈古貴 2410-21〉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될 것이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4매를 제외한 6매의 편지는 그 정확한 시기를 알기가 어렵다. 120002, 120011, 120009, 119984, 120006의 다섯 통은 공통적으로 ‘녕변’이라는 인물의 회갑과 먼 길을 다녀온 일, 수신인이 먼 곳을 다녀온 일 등이 그 내용인데, 과연 ‘녕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고(평안도의 寧邊과의 관련 가능성도 생각해 보았으나, 순원왕후의 가까운 일가 중 영변에서 관직 생활을 한 사람에 관해서는 기록을 찾지 못했다) 수신인이 어딘가를 다녀온 것 역시 공적인 일이 아닌 듯하여 관련 기록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편지들은 순원왕후와 항렬이 같은 사람으로서 회갑 이상을 맞았던 김좌근이나 김응근, 김홍근이 회갑을 맞은 해인 1853년이나 1856년 경에 쓰인 것이 아닐까 대략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집안의 喪事를 당한 애통함과 위로를 전한 편지인 119982(2)와 120006은 그 시기를 짐작하기가 어렵다.

### 3.2.2. 《純元王后御筆》

#### 3.2.2.1. ‘호소’ 체 편지

〈古貴 2410-21〉은 ‘호소’ 체를 사용한 편지 13매와 ‘호쇼셔’ 체를 사용한 편지 12매가 있다. ‘호소’ 체를 사용한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기상으로는 1837년부터 1850년 무렵까지의 기간에 쓰였음을 알 수 있으며, 수신인은 재종동생인 金興根인 경우가 많다. 편지 중에는 시기 및 수신인이 비교적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밝힐 수는 없고 단지 대략적인 추정만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현재로는 그 자체만으로 시기나 수신인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먼저 시기와 수신인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편지로는 1-13, 2-8, 1-5, 2-2, 1-9, 1-14가 있다. 봉투에 ‘부스’라 적혀 있는 1-13은 수신인이 사신으로 청나라에 가기에 앞서 염려와 당부를 전한 것인데, 그렇다면 수신인은 순원왕후의 일가 중 청나라에 사신을 간 적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순원왕후의 재종오라버니인 金弘根이 1831년에, 재종동생인 金興根이 1837년에 각각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손아랫사람에 대해 사용하는 ‘호소’ 체가 사용되었으므로 이 편지는 1837년 10월 경에 동생인 金興根에게 보낸 것임이 분명하다. 같은 맥락에서, 사신에서 돌아온 후에 보낸 편지인 2-8은 1838년 3월 귀국한 金興根에게 보낸 편지이다. 다만 봉투에 ‘참판 입납’이라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데, 김홍근이 참판이 된 것은 1839년의 일이기 때문이다. '참판 입납'이라 되어 있는 또 다른 편지인 1-5는 地方官으로 떠나기 위해 사조(辭朝)하러 오게 될 수신인에게 건강히 지내고 봉직을 잘할 것을 당부한 편지여서, 1841년 이조참판이었던 김홍근이 평안도 관찰사로 갈 당시의 편지임을 알 수 있다.<sup>13)</sup> 2-2 역시 김홍근에게 보낸 편지로서, 순조의 주갑년이 되는 해인 1850년 1월에 쓴 것이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살 것을 염려해 편지를 하지 못했으니 서운해 하지 말고 다시 조정에 나와 도와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막 유배지에서 돌아온 김홍근에게 보낸 편지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9는 1840년 12월 수렴청정을 거둘 당시의 편지인데, 친정 오라버니인 金道根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함께 재종오라버니인 金弘根의 건강을 걱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1-14의 경우는 헌종의 두 번째 가례 때인 1844년에 쓴 편지인데, 1842년 세상을 떠난 金弘根의 終喪이 되니 애통하다는 내용이어서 이 두 편지 역시 그 아우인 金興根에게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sup>14)</sup>

1-3은 因封, 즉 임금의 장사가 끝나고 四處까지 지난 상황에서 새 임금이 아무것도 모름을 걱정하는 내용이어서 1849년 헌종이 승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쓴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또 2-1의 경우는 공주의 묘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노여움을 토로한 편지인데, '윤씨 집으로 ㅎ여도'란 구절로 보아 순원왕후의 세 공주 중 윤씨 가문으로 下嫁한 셋째 德溫公主가 세상을 떠난 1843년 무렵의 편지인 것으로 보인다. 2-9는 '내가 서증손녀를 보아 시니'라는 구절로 보아 아마도 헌종과 궁인 김씨 사이에서 난 옹주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이상의 세 편지는 그 시기를 대략 밝힐 수는 있었지만 수신인이 누구인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김홍근이 아닐까 추측할 수는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제시할 수 없다.

1-4, 1-6, 1-8, 2-6은 편지의 내용과 '판서'라는 관직명을 가지고 그 시기와 수신인을 분명히 밝힐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 다른 편지들이 김홍근에게 보낸 것임을 고려하면, 이들 역시 김홍근에게 보낸 편지일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은 수신인 추정을 보류하였다.

13) 만약 1-5의 '참판 입납'이라 되어 있는 봉투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 편지는 김홍근이 1835년 진라 감사로 떠날 무렵이나 1848년 경상도 관찰사로 떠날 무렵에 쓴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신인이 김홍근임에는 변함이 없다. 순원왕후가 'ㅎ소'체를 사용할 만한 또 다른 인물인 김좌근은 지방관이 된 적이 없고, 김홍근은 주로 지방 현령으로 다녔기 때문에 辭朝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

14) 1-9의 경우에는 봉투에 '참판 입납'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당시 김홍근은 참판이 아니라 성균관 직제학이었다. 따라서 혹시 이 편지가 당시 참판이었던 친동생 김좌근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해 보았으나, 재종오라버니의 안부를 친동생에게 묻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듯하며, 그보다는 차라리 봉투와 편지가 뒤바뀐 것으로 보는 편이 더 가능성이 있을 듯하다.

일련번호	수신인	시기	편지 내용	봉투	겉종이	비고
1-13	김홍근	1837년 10월	연행(燕行)을 사패(辭陞)하니 건강하게 잘 다녀올 것을 당부함.	부스 입납	없음	1837년 10월 김홍근이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감.
2-8	김홍근	1838년 3월	他國遠程을 무사히 다녀옴 치하. /자신으로 간 동안 아내를 잃은 것 위로. 오라버니의 안부를 물음.	참판 입납	없음	
1-9	김홍근	1840년 12월	子婦를 잘 얻은 것 축하. 오라버님(김홍근?)의 건강 걱정. 태산같이 믿던 오라버님(김유근?)의 죽음으로 애통한 심정. 수렴청정을 거두게 되어 시원함.	참판 입납	없음	1840년 12월 순원 왕후의 오라버니인 김유근 죽음. 1840년 12월 철령.
1-5	김홍근	1841년 2월? 1835년 3월?	지방으로 부임하게 됨에 평안히 지내고 일 잘하기를 바람.	참판 입납	없음	1841년 이조참판 김홍근이 평안도 관찰사가 됨.
2-1	김홍근?	1843년?	공주의 묘지 선정을 놓고 논란이 분분한 데 대한 분노. 수신인 및 집안 사람들의 태도가 서운함.	판서 입납	봉서	1843년 덕온공주 죽음. '공주의 묘지, 윤시 집으로 하여도...'
1-14	김홍근	1844년 10월	오라버님(김홍근?)의 終喪이 되니 새삼 애통함. 가례를 무사히 치르고 중전이 숙성하여 기쁘나, 옛 중전을 생각하니 슬픔.	판서 기랍	없음	1844년 헌종의 두 번째 가례를 치른 후의 편지로 추정 됨.
2-9	김홍근?	헌종 연간	안부 물음. 서증손녀를 보아 기쁨. 내년엔 원자를 보게 되기를 기원함.	판서 기랍	없음	'서증손녀'는 헌종의 옹주(생몰년 미상)를 가리키는 듯함.
1-3	김홍근?	1849년 11월	因封이 지나고 四處까지 지나니 애통한 마음. 새 임금의 성품이 순실하나 잘 가르쳐야 함을 당부.	판서 답간	없음	
2-2	김홍근	1850년 1월	새해 인사. 선대왕(순조) 주갑년을 맞아 새로이 통원망극함. 그간 편지를 못한 것에 대한 변명과 위로. 관직에 나올 것을 당부함.	없음	없음	1849년 헌종 승하 후 김홍근은 유배에서 풀려나 1850년(순조의 주갑년) 1월 한성부 판윤이 됨.
1-8	김홍근?	?	진사(?)의 관복 입은 모습을 보니 기쁘며, 六家六從兄弟가 수복이 장원하고 화목한 일가를 이루기 바람.	판서 기탁	없음	
1-4	김홍근?	?	집안에 파악한 자식이 나 남에게 없는 소조를 당하니 노여움. 결단을 내려 처리할 것을 당부.	판서	없음	어떠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음.
1-6	?	?	병이 나아 왕에게 숙배까지 하니 다행스럽고 기쁨.	판서 기랍	판서스동	
2-6	김홍근?	?	안부를 묻고 말조심할 것을 당부. 임금을 뵈고 싶은지 물음.	판서 기랍	없음	

## 3.2.2.2. ‘호쇼셔’ 체 편지

〈古貴 2410-21〉의 ‘호쇼셔’ 체를 사용한 편지들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1851년 경에 쓰인 것이 많다. 김정희가 다시 유배를 가게 된 것이라든가, 효정전(憲宗)의 喪事가 지나 祔廟 후 眞廟(眞宗으로 추존된 영조의 세자)를 祧遷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5월의 진전 환안과 임금이 대원군궁 및 육상궁과 선희궁에 거동하는 문제 등은 모두 1851년에 조정에서 논의되었던 일들이다. 또한 1-2의 경우는 집안의 조카가 되는 인물이 급제하니 기쁘다는 것을 알린 편지인데, ‘두 오라바님 아로미 겨신디 비감호오이다’, ‘쇼관과 흥석종 과거를 호엿다 하니’란 구절로 보아 金弘根의 친자이자 순원왕후의 친정 오라버니인 金道根의 양자인 金炳滄가 정시문과에 급제한 1851년에 쓴 편지임을 알 수 있다. 1-10과 2-4의 경우는 각각 아무것도 모르는 임금에 대한 걱정 및 수렴청정의 부담감, 임금의 외조봉사할 사람에 대한 불만 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철종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의 편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10과 2-5의 경우는 그 내용과 함께 이 편지가 ‘좌합’에게 보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추정하였는데, 〈古貴 2410-21〉에서 편지의 수신인이 되는 ‘좌합(左閤)’, 즉 좌의정은 순원왕후의 재종동생 金興根임이 분명하므로 그가 좌의정이 된 1851년에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바로 앞에서 1850년 1월에 김홍근에게 보낸 편지로 제시했던 2-2에서는 ‘호소’ 체를 사용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똑같은 인물에게 아주높임인 ‘호쇼셔’ 체를 사용할 수 있는냐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순원왕후의 일가 중 순원왕후가 생존한 당시에 좌의정을 지낸 사람은 金弘根(1842년)과 金興根(1851년)뿐인데, 편지의 내용으로 1851년에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의 ‘좌합’이 김홍근임은 확실하다.<sup>15)</sup> ‘호소’ 체로 대하던 김홍근에게 그가 판부사였던 1854년 무렵부터는 ‘호쇼셔’ 체의 편지를 보낸 것을 이미 앞의 〈奎 27785〉에서도 보았는데, 이처럼 ‘호소’ 체에서 ‘호쇼셔’ 체로 바뀌게 된 것은 1851년 김홍근이 정일품인 좌의정에 오르게 된 일을 계기로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신이 왕실의 최고 어른이고 상대는 재종동생이기는 하지만, 의정부의 최고직에 오른 이상 예사뉘춤으로 대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한편, 1-11과 1-12의 경우는 관직명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호쇼셔’ 체를 사용한 데다가 진전 환안이나 임금의 거동, 영의정의 일 등을 의논한 것으로 보아 이 역시 당시 좌의정인 김홍근에게 쓴 편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7과 2-7은 그 시기 및 수신인 추정에 있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우선, ‘호쇼셔’ 체를 사용한 다른 편지들이 대체로 1851년에 쓰인 것임을 감안하여 이 두 편지도 그 무렵에 쓰인 것으로 본다면, 이들은 각각 1851년 9월

15) ‘좌상 기랍’이라 되어 있는 2-3의 경우는 ‘헌종기셔는’, ‘진묘 묘천’과 같은 구절이 있어 이 편지가 1851년에 쓰인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동심의 말을 지중의게 이리 쓰는 거시 울티 아니디’란 구절이 있어 수신인이 재종인 金興根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일련번호	수신인	시기	편지 내용	봉투	겉종이	비고
12-5	김홍근	1851년 2월	좌의정이 됨을 축하하고, 앞서 좌의정으로 제수하지 않은 까닭을 설명. 임금을 잘 보좌하기를 바람.	좌합 기탁	없음	
1-12	김홍근	1851년 5월	진전 환안, 상감이 대원군궁 및 옥상궁, 선희궁에 거동하는 문제를 묻고 의논함.	없음	없음	1851년 5월 17일 진전 환안이 있었음. 편지 앞의 여백으로 보아 앞 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1-15	김홍근	1851년 5월	효정전(헌종) 상사를 지내고 상하 관상이 변제하니 새로이 애통함. 附廟 후 祧遷하는 일에 대한 질문.	좌합 기탁	없음	1851년(철종2년) 헌종의 부모 후 진묘 조처하는 일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2-3	김홍근	1851년 6월	영상을 둘러싼 안 좋은 논란, 진묘 조처에 관한 질문, 자신의 동생인 판서를 책망한 이야기 등.	좌상 기탁	없음	1851년 진묘 조처와 관련하여 영의정 권돈인이 탄핵을 받음.
1-1	김홍근	1851년 7월	안부 물음. 김정희가 다시 유배를 가게 된 일.	좌합	없음	1851년(철종2년) 김정희가 복청으로 유배됨.
1-10	김홍근	1851년	왕을 잘 가르쳐 이끌어 주기 바람. 왕의 성품. 수렴정정의 막중한 책임과 그 부담감 토로.	좌합 기탁	봉서	
1-2	김홍근	1851년	교관(김병주?)이 급제하니 기쁘고 기특하나, 두 오라버님이 아실 길 없으니 슬픔.	좌합 기탁	없음	1851년(철종2년) 정시문과에 홍근의 친자이며 유근의 양자인 김병주 급제.
2-4	김홍근	1850년?	대신이 조처한 일이 대체로 만족스러움. 상감의 외조봉사할 사람을 염종수로 정했으나 마음에 차지 않음.	대신 입납	없음	
1-11	김홍근	1851년?	영상이 양주까지 간 일. 수신인의 건강 염려. 좌상을 아니 쓴다는 시비를 개의치 않음.	없음	글씨가 없음	1851년 영의정 권돈인이 유배를 간 일(?).
2-7	김홍근? 김홍근?	1851년? 1841년? 1월	새해 인사. 철렴(撤簾)을 하니 시원하면서도 걱정스러움.	판서 기탁	봉서	1840년 12월 철렴, 1850년 12월 철렴
1-7	김홍근? 김홍근?	1837년? 1851년? 9월	대례를 앞두고 기쁜 마음. 부원군의 인상과 중궁전의 인품을 보고 안심함.	판서	없음	1837년 헌종의 가례 혹은 1851년 철종의 가례 때 편지.
1-16	김홍근?	?	더위에 잘 지내는지 안부 물음.	없음	봉서	시기를 알 수 없음. 단순한 안부 편지.

철종의 대례 때와 1850년 1월 순원왕후가 두번째 수렴청정을 거둔 이후에 쓴 것으로, 그리고 다른 편지와 마찬가지로 당시 좌의정이었던 김홍근에게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때에는 봉투에 '판서'라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 경우는 봉투가 바뀐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편지가 1851년이 아니라 그 이전, 즉 헌종의 가례가 있었던 1837년과 첫번째 수렴청정을 거둔 이후인 1841년 1월에 쓰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편지의 수신인은 김홍근이 아니라(이 당시에는 김홍근에게 '호소'체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순원왕후의 손윗사람, 그 중에서도 당시 판서였던 김홍근의 형 김홍근으로 추정할 수 있다. 끝으로, 단순한 안부 편지인 1-16은 언제, 누구에게 쓴 것인지 분명히 알기가 어렵다.

## 4. 국어학적 고찰

국어학 연구에서는 대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를 근대국어 시기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순원왕후의 한글 편지가 쓰인 19세기 중엽은 근대국어 시기의 후반에 속한다. 이 장에서는 순원왕후의 한글 편지에 반영된 언어 사실을 표기, 음운, 형태, 문법, 그리고 표현 양식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4. 1. 표기

표기법에 있어서는 분철 표기, 특히 명사와 조사가 결합할 때의 분철 표기가 거의 현대국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다만 명사 중에서도 '것'과 '므엇'만은 거의 예외없이 연철 표기 되었다.

- (1) ㄱ. 하늘은(120011), 말을(119991), ㅁ음이(1-9), 처음으로(120011), 논의(119993)  
 ㄴ. 거시(2-1), 거손(1-10), 므어시라(1-4)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사의 활용에 있어서는 아직 연철 표기를 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분철 표기가 된 경우도 간혹 눈에 띈다.

- (2) ㄱ. 도흔(120005), 업스니(2-2), 우슬(1-11)  
 ㄴ. 늑어(1-2), 늑으라(119981-2), 떡으니(119992)

한편 어간말음이 'ㄷ'이거나 둘째 음절의 첫 음이 'ㄷ'인 경우는 주로 중철 표기 되었다.

- (3) ㄱ. 승던빚츠로(119996), 꺾터(120010), 쫓치(119989), 꺾춘(120004-1),  
 ㄴ. 쫓터(119990), 꺾치니(120005)

또한 어간말의 ㄷ이나 ㅌ이 모두 ㅅ으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다.

- (4) ㄱ. 쫓이(119993)  
 ㄴ. 꺾디(119981-1), 일꺾스오며(119984), 뚝고(1-3), 꺾죽음도(1-16), 뚝고(2-5)

근대국어 시기에 서로 넘나들며 쓰이던 어간말의 ㅅ과 ㄷ이 대개 ㅅ으로 통일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19세기 국어의 특징이다.

어중 모음 사이의 ㄹㄹ이 ㄹㄴ으로 표기되는 것 역시 근대국어 자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 (5) 놀나오미(119993), 대신들노브터(120011), 진실노(120003), 절노(119998), 말노(1-4), 날노(2-1)

이러한 표기는 특히 18세기에 들어서서 크게 확산된 것인데, 이것이 실제 발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어중 모음 사이의 ㄴㄹ을 ㄴㄴ으로 표기한 예도 간혹 보인다.

- (6) 윈노형역(119997), 천니윈도의(119993)

## 4.2. 음운

순원왕후의 한글 편지에 나타나는 음운론적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ㄷ구개음화를 겪지 않은 형태가 ㄷ구개음화를 겪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ㄷ구개음화는 17~18세기에 걸쳐 진행되어 19세기 초에는 서북방언을 제외한 모든 방언에서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순원왕후의 편지는 19세기 중엽에 쓰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ㄷ구개음화가 반영된 예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 (1) ㄱ. 테력(119997), 형테(119997), 덕거(1-1), 턴의(1-14), 묘디(2-1), 털념(2-7)  
 ㄴ. 더(119987-2), 뚝터(119993), 엇디(119993), 디너논디(1-3), 씨터디(1-1), 덕너(1-8),  
 (2) 저리ㅎ여도(119981-2), 압서지(120004-1), 저리ㅎ여습느니이다(1-1)  
 (3) 아디(119997), 성복꺾디(120001), 더히들(2-4)

대체로 한자어는 ㄷ구개음화를 반영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며, 고유어의 경우는 '디' '니' '디' 와 '압서지' 의 두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개음화 이전의 형태와 이후의 형태가 공존하나 후자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3)의 예는 본래의 음이 'ㅈ' 인데도 'ㅣ' 모음이나 'ㅋ' 앞에서 'ㄷ' 으로 과도교정된 경우이다. (1)과 같은 예가 (2)의 예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보인다고 해서 실제 발음에서도 ㄷ구개음화가 잘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19세기 초에는 중앙 방언에서 이미 ㄷ구개음화가 완성되었고, (3)과 같이 과도교정된 예가 보인다는 것은 실제 발음에서 ㄷ구개음화가 활발히 일어난 것의 반작용일 수 있다. 그러나 표기의 측면에서 보수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과 같은 예가 많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근대국어에서 구개음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두에서 모음 'ㅣ' 앞의 'ㄴ' 이 탈락하는 것인데, 이 현상은 18세기 후반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19세기에 들어서면 일반화되거나 순원왕후의 편지에서는 아직 모음 'ㅣ' 앞에서 'ㄴ' 이 탈락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4) 넘어시니(1-1), 님군(1-3), 녀흐로(1-8), 녀 며느리(1-14), 님위계(1-14), 니즌  
 때(2-2), 님혀(2-3)

또한 '이야기' 를 '니아기' 로 쓰는 등 본래 어두의 'ㅣ' 앞에 'ㄴ' 이 없는 단어에조차 'ㄴ' 을 더한 예도 보인다.

19세기 국어에서는 'ㅅ, ㅆ, ㅈ' 아래의 모음 'ㅣ'가 'ㅣ'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순원왕후의 한글 편지에서는 'ㅆ' 아래에서 'ㅣ'가 'ㅣ'로 바뀐 예와 함께, 이와는 반대로 'ㅈ' 아래에서 'ㅣ'가 'ㅣ'로 바뀐 예도 보인다.

(5) ㄱ. 이질고(1-3)  
 ㄴ. 인스도 츠루려(2-8)

이처럼 두 가지 상반된 예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은, 'ㅅ, ㅆ, ㅈ' 아래의 모음 'ㅣ'가 'ㅣ'로 바뀌는 현상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과도교정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4.3. 형태

형태론적 측면에서 근대국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주격 조사 '-가'의 등장이다. 주격조사 '-가'는 1572년의 정철의 어머니 안씨의 한글 편지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 (1)에서 언급했듯이 이 부분은 해석상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다만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가 17세기 중엽부터라는 것은 확실하다. 처음에는 주로

‘ㅣ’ 모음이나 하향이중모음 뒤에서 쓰이다가 18세기 중반부터는 다른 모음 뒤에서도 쓰이기 시작했다.<sup>16)</sup> 현대국어에서처럼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뒤에서는 ‘-가’가 결합되는 것으로 확립된 것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의 일이다. 순원왕후의 한글 편지에는 자음 뒤에서 예외 없이 주격조사 ‘-가’가 쓰였다.

- (1) ㄱ. 십지가 굿디 못<sup>ㅎ</sup>여(119981-2)  
 ㄴ. 엇디 애<sup>ㅎ</sup>고 야속디가 아<sup>닐</sup>가 본<sup>가</sup>(119992)  
 ㄷ. 내가 엽고<sup>저</sup>만 시<sup>비</sup>(119990)  
 ㄹ. 스려가 만<sup>하</sup>(120009)  
 ㅁ. 아<sup>쳐</sup> <sup>ㅎ</sup>시는 므디가 겨<sup>시</sup>니(120005)  
 ㅂ. 뻑은 나모가 되<sup>어</sup>시니(120004-1)

존칭의 주격조사 ‘-겨오셔’의 등장은 후기 근대국어의 또 다른 특징이다. 중세국어에서부터 존칭의 주격조사 ‘-썌셔’가 존재했으나, 근대국어 시기에 들어서서 ‘-썌셔’와 함께 새로운 존칭의 주격조사인 ‘-겨오셔’가 쓰이기 시작했다. 순원왕후의 편지는 왕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특히 존칭을 사용하게 되는 일이 많은데, 기존의 존칭 주격조사인 ‘-긔셔’와 함께 ‘-겨오샤, -겨오셔’를 쓴 예가 보인다. 후자의 경우는 특별히 극존칭을 해야 할 대상과 결합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 (2) ㄱ. 쥬상긔셔(120000), 상감긔셔는(120009), 헌중긔셔는(2-3), 근던긔셔(2-9), 조상긔셔는(120011), 대신긔셔(120011), 오라바님긔셔는(2-8)  
 ㄴ. 마〰겨오샤도(120003), 정묘겨오셔도(120003)

추측, 의도의 선어말어미 ‘-겻-’의 등장 역시 근대국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이다. ‘-겻-’은 ‘-게 <sup>ㅎ</sup>엿-> -게엿-> -겻-’의 축약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18세기 말에서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순원왕후의 편지에는 ‘-게 <sup>ㅎ</sup>엿-’과 ‘-겻-’이 둘 다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엿볼 수가 있으나, ‘-게 <sup>ㅎ</sup>엿-’에서 ‘-겻-’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인 ‘-게엿-’은 보이지 않는다.

- (3) ㄱ. 므음을 노케 ㅎ엿니(119982-1)  
 ㄴ. 가부를 모로게 ㅎ엿니(1-3)  
 ㄷ. 어 잘 ㄱ르<sup>치</sup>게 ㅎ엿는가(119981-2)  
 ㄹ. 언<sup>머</sup> 세월이 가 닌년 쥬동이 되게 ㅎ엿는<sup>고</sup>(119981-1)

16) 홍윤표(1994)의 412면~413면에는 근대국어 시기에 주격조사 ‘-가’가 나타난 문헌과 그 출현 환경이 정리되어 있다.

ㄹ. 가국의 일이 업스면 다행이게 ㅎ엿넌(1-5)

(4) ㄱ. ㅁ음을 노켓노라(119987-1)

ㄴ. 몇 비가 더홀 줄 모르게습 ㄴ이다(1-10)

ㄷ. 올티 아니 ㅎ갯나(120010)

ㄹ. 그리 ㅎ시면 도켓다 ㅎ엿는가(119998)

중세국어에서 객체높임의 선어말어미였던 '-습-', '-읍-'이 근대국어 시기에는 화자 겸양을 표시하는 선어말어미로 그 기능이 바뀌었는데, 19세기에는 종결어미의 기능을 지닌 '-습, -읍'이 새롭게 등장했다.

(5) ㄱ. 정성으로 국스 ㅎ시읍(1-11)

ㄴ. 정신이 사오나와 스연을 역거 쓰디 못ㅎ오니 다 고이ㅎ 일이읍(1-15)

ㄷ. 히 밧고여 이십 일이 되여시나 봉셔도 못 ㅎ여습(120002)

ㄹ. 판셔기도 ㅎ여 보아시디 의심되여 이리 떡습(1-12)

ㄹ. 엇더케 쳐분을 ㅎ여야 도케습(2-3)

종결어미 '-습, -읍'은 그 뒤에 '-니이다'라든가 '-ㄴ이다', '-ㄴ잇가' 등과 같은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의 통합체가 생략되어 형성된 것으로 현대국어에서도 안내문이나 편지 등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다.

중세국어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ㅎ 중성체언이 점차 ㅎ이 탈락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근대국어 중기 이후의 특징적인 양상이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에 쓰인 순원왕후 한글 편지에서는 여전히 ㅎ 중성체언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 길히셔(119987-2), 뒤히(1-9), 안호로(2-2), ㅎ나히나(2-4), 나라희(2-7), 우히셔(2-1)

그러나 어간의 말음 ㅎ이 탈락한 형태도 드물게 보이는데, '터' 같은 단어는 '터을(2-2)'과 같이 늘 ㅎ이 탈락된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중세국어에서 특수어간교체를 보였던 명사가 규칙적인 곡용을 보이게 된 예도 볼 수 있다. '나모가(120004-1)'와 같은 예가 바로 그것인데, 근대국어 중기까지만 해도 대개 '남기'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세기에 들어서서는 이전에 명사와만 결합했던 복수의 접미사 '-들'이 명사가 아닌 다른 품사 혹은 어근과 결합한 예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7) ㄱ. 외간의셔 엇더이들 아논고(2-9)

ㄴ. 여러 집 과세 평안이 호고 태평이들 디니소(119982-1)

ㄷ. 피위들 호논 듯호니(2-3)

ㄹ. 아니 긔특들 호가(119981-1)

ㅁ. 대니셔논 안녕들 호시니(119999)

예 (6)의 (ㄱ)과 (ㄴ)은 부사에 ‘-들’이 결합한 예이고, (ㄷ)~(ㅁ)은 ‘안녕 호-’, ‘긔특 호-’, ‘피위 호-’와 같이 한 단어가 된 복합어의 내부에 ‘-들’이 끼어들어 그 어근과 결합한 예이다.

근대국어, 특히 18·19세기 국어에는 ‘어간#호-’에 피동접미사 ‘-이-’가 결합한 피동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중세국어나 현대국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특징적인 형태이다.

(8) ㄱ. 므슨 탈이나 업슬가 관심 호이던 모음으로논(120007)

ㄴ. 처음 놀납고 어이업던 모음이 진정 호이나(120007)

ㄷ. 잡병들 만타 호니 두루 방심티 못 호이니(119991)

ㄹ. 평일 아바님 호오시던 말숨이 상〃 호이와(1-9)

근대국어 시기는 한자어에서 비롯된 새로운 의존명사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근대국어 초기에는 ‘理’에서 기원한 ‘니’나 ‘體’에서 기원한 ‘테, 체’ 등이 등장했고, 19세기에는 ‘手’에서 기원한 ‘슈, 수’ 등이 나타났다. 순원왕후의 편지에도 이러한 새로운 의존명사들이 보인다.

(9) ㄱ. 즈너 모음인들 남이에서 정성이 압셔지 뒤질 니논 업슬 거시니(120004-1)

ㄴ. 아모리도 홀 수 업셔(120004-1)

의존명사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밖[外]’이 관형사형 뒤에서 의존명사로 쓰였다는 사실이다.<sup>17)</sup>

(10) ㄱ. 기드릴 밧 업느니(120005)

ㄴ. 큰 결단 홀 밧 업스니(1-4)

ㄷ. 연힘을 사패를 호니 섭〃호 밧 윈노빙명의 왕반 엇디 홀디(1-13)

17) 본래 어형은 ‘밖’이나 의존명사로 쓰일 때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예에서는 ‘밧’으로만 나타난다.

#### 4.4. 경어법 체계

순원왕후의 편지에서는 '호쇼셔' 체와 '호소' 체, '하라' 체 세 등급의 경어법 체계를 살펴볼 수 있다. 근대국어의 '호쇼셔' 체는 종결어미 자체에 있어서는 중세국어의 '호쇼셔' 체와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근대국어의 '호쇼셔' 체는 주로 화자 겸양의 선어말어미 '-습-, -옵-'이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순원왕후의 편지에 나타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ㄱ. 가실 제도 편지 못 호엿기 줌 덕습늑이다(119984)  
 ㄴ. 김명희는 실노 지승덕호여 소년으로브터 저러호여습늑니이다(1-1)  
 ㄷ. 덕을 말습이 업스오이다(120006)<sup>18)</sup>  
 ㄹ. 다형이 유치의 아들이 잇는 줄이 기라도 만형호옵더이다(119987-2)  
 ㅁ. 더 지경이 될 줄은 몰라습더니이다(119987-2)  
 ㅂ. 애드라온 사름이올너이다(1-1)  
 ㅅ. 엿디 디내시옵늑니잇가(2-3)  
 ㅇ. 과세 평안이 호여 겨시디 호옵더니잇가(120002)  
 ㅈ. 호뭇든〃호심 오죽호여 겨시오리잇가(119997)  
 ㅊ. 잘호여 주시옵쇼셔(2-7)

이 편지에는 '기운 평안호시니잇가(1-1)', '엿디호시니잇가(2-7)'와 같이 '호쇼셔' 체에 선어말어미 '-습-, -옵-'이 결합되지 않은 경우도 나타나, 그 예가 적다. 예 (1)과 같이 '호쇼셔' 체에 '-습-, -옵-'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주높임을 나타내는 어말어미가 '호쇼셔' 체에서 '합쇼' 체로 옮겨 가는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원적으로 선어말어미 '-줍-', '-옵-'이 결합한 어휘에 다시 '-습/옵-'이 결합된 예는 이 선어말어미의 기능 변화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하다.

- (2) ㄱ. 오늘은 아디 못 듣즈와습늑이다(1-16)  
 ㄴ. 탈은 조금 나으실 듯호여 뵈오시옵더이다(1-16)

(2ㄱ)의 '듣즈와습늑이다'는 동사어간 '듣-'과 선어말어미 '-줍-'이 결합한 '듣줍-'에 과거시제의 선어말어미 '-앗-'이 결합하고, 그 뒤에 다시 선어말어미 '-습-'이 결합한 것이다. (2ㄴ)은 동사어간 '뵈-'에 선어말어미 '-옵-(<-옵-)'과 주체높임의 '-시-'가 결합하고

18) '-오이다'는 '-외다'로도 나타난다. 예) 스려가 만하 이러호외다(120009)

여기에 다시 ‘-옵-’이 결합되었다. 이처럼 선어말어미 ‘-습-, -옵-’이 거듭 결합된 예가 보이는 것은, 이것이 본래 객체높임의 선어말어미였다가 16세기 무렵부터 점차 화자 겸양을 표현하는 데 쓰이기 시작하고 근대국어에 와서는 화자 겸양의 선어말어미로 기능이 변한 것과 관련된다. 즉 ‘듣줍-’의 ‘-줍-’이나 ‘뵈옵-’의 ‘-옵-’은 본래의 의미인 객체높임을 표시하기 위해 쓰인 것이나, 그 뒤에 다시 결합된 ‘-습-’이나 ‘-옵-’은 화자 겸양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것이다. 따라서 ‘뵈옵시옵더이다’에서 앞의 ‘-옵-’과 뒤의 ‘-옵-’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별개의 선어말어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편지에는 선어말어미 ‘-습/줍/옵-’이 ‘-시-’ 앞에 결합된 경우와 ‘-시-’ 뒤에 결합된 경우가 공존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이 나타난다.

(3) ㄱ. 견비통은 엇더호오시니잇가(1-2)

ㄴ. 쾌츠호시오니잇가(119999), 업시호시옵쇼셔(120009), 엇디 디내시옵느니잇가(2-3)

중세국어 시기에는 객체높임의 선어말어미가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 ‘-시-’에 앞서 결합되었으나, 17세기에 들어서는 ‘-시-’ 뒤에 결합된 예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결합 순서의 변화는 앞서 언급한 선어말어미 ‘-습/줍/옵-’의 기능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중세국어의 예사높임인 ‘하야썌’체를 대신하여 16세기 말쯤 ‘호소’체가 등장했는데,<sup>19)</sup> 본격적으로 문헌에 등장하게 된 것은 17세기 말~18세기 초 무렵부터이다. ‘호소’체는 ‘-(으)이->-(으)이’, ‘-노이->-니’, ‘-더이->-데’, ‘-로소이->-로쇠->-로세’와 같이 선어말어미의 축약을 통해 형성되었으며,<sup>20)</sup> 의문형 어미인 ‘-ㄴ가/ㄴ고, -르가/르고’는 중세국어 시기에 간접의 문문의 종결어미였던 것이 근대국어 시기에 와서는 직접의문문의 종결어미로 바뀐 것이다.

(4) ㄱ. 심히 성실티 아니히(119998), 엇더하여 설위호엿던고 시비(119990), 석훤〃 깃빅(119986)

ㄴ. 병이나 쾌히 낮기 브라니(120008), 호디 못호엿넌(1-9)

ㄷ. 흔 따디 말을 못호니 설〃호테(119991), 그도 설테(1-9)

ㄹ. 엇디호신 말솜인고(119996), 즈니 샹히 편지호량이나 호엿던가(119993)

ㅁ. 굿티여 그런 일은 다 본바다 호실가(119998), 결단호는 거서 엇더홀고(1-4)

ㅂ. 슬흔 일이로세(119981-1), 다힘이로쇠(2-6)

ㅅ. 그리 아소(2-9), 평온이 디닉소(119993)

19) 16세기 말에 쓰인 순천 김씨 묘 출토 간찰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20) ‘호소’체의 명령형 종결어미인 ‘-소’의 기원에 대해서는 선어말어미 ‘-소오-’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와 ‘호쇼셔’체의 명령형 종결어미인 ‘-쇼셔’에서 온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는데, 아직 분명히 결정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하여야 올티 아니하겠나(120010)’와 같이 의문형 종결어미 ‘-나’가 쓰인 예라든가, ‘또 어느 때나 드러와 이시라 하논가(120004-1)’와 같이 본래 판정의문문에 쓰이는 ‘-는가’가 설명의문문에 쓰인 예 등은 현대국어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서 흥미롭다.

순원왕후의 편지에 나타난 ‘하라’체는 중세국어의 ‘하라’체와는 다른, 근대국어 ‘하라’체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 (5) ㄱ. 석현 깃브리 측낭 업다(119983)  
 ㄴ. 그 스이 또 쇼식 드러가 하다(120000)  
 ㄷ. 아모라타 업더라(120007)  
 ㄹ. 도흔 새가 이시리라(120000)  
 ㅁ. 나디 아니하엿더냐(119994)  
 ㅂ. 또 쇼식이나 드러느냐(120007)  
 ㅅ. 원니훈 정니 오죽하라(120000)  
 ㅇ. 네 아버지 드리고 과세 평안〃이 하여라(119983), 보답하여라(119988)

중세국어의 ‘하라’체와 구별되는 근대국어 ‘하라’체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는 우선 중세국어에서는 현재시제 평서문이 ‘-는다’로 나타났으나 근대국어에서는 (5ㄴ)과 같이 ‘-나다’(혹은 ‘-는다’)로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중세국어의 2인칭 의문법 종결어미 ‘-나다, -르따/ᄃᄃ다’가 근대국어 시기에는 이미 사라지고 그 대신 (5ㄱ~ㅅ)과 같이 ‘-냐, -랴’로 나타난다는 점도 커다란 변화이다. 한편, 순원왕후의 편지 중에 ‘하라’체가 사용된 것은 총 6매인데, 이 가운데에서 명령문은 (5ㅇ)의 두 예만이 보일 뿐이고 ‘하라’형의 명령문은 찾아볼 수가 없다. 여기 보이는 ‘하여라’는 낮춤의 경어법이 ‘하라’체에서 ‘해라’체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되지만, 예가 적어서 단언할 수 없으므로 일단은 ‘하라’체라는 기존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중세국어에서도 간혹 보이던 ‘-리’ 종결형도 나타나는데, ‘하라’체 편지(119988)와 ‘하소’체 편지(120005) 양쪽 모두에 쓰이고 있다.

- (6) ㄱ. 엿디 다 덕으리(119988)  
 ㄴ. 말 듣기 나으리(120005), 거의 다 아라시리(120005)

#### 4.5. 표현의 특징

순원왕후의 한글 편지에는 편지 글 특유의 독특한 문체가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생략 표현이 있다. ‘-하-’가 결합된 용언에서 어근만 남겨 두고 ‘-하+활용어미’는 생략한

표현을 볼 수 있다.

- (1) ㄱ. 너는 엇디 디닌디 불상 닛디 못 잠 덕는다(120000)  
 ㄴ. 마디 못 이 거조를 하니(2-2)

그 중에서도 ‘어근#ㅎ-’가 연결어미 ‘-고’로 다른 용언구와 결합할 때 ‘-ㅎ고’를 생략한 표현이 특히 많이 나타나서, 거의 모든 편지에서 빠짐없이 발견된다.

- (2) ㄱ. 든〃 반가오나(1-3)  
 ㄴ. 식훤 깃브오이다(1-7)  
 ㄷ. 절통 애눙스오이다(119987-2)  
 ㄹ. 허우룩 비감ㅎ고(119999)  
 ㅁ. 원통 앓갑고 불상 한심 하니(1-15)  
 ㅂ. 민망 답〃 ㅎ오이다(119997)  
 ㅅ. 흐뭇 든〃 ㅎ심(119997)

이들은 ‘든〃 ㅎ고 반가오나’, ‘식훤ㅎ고 깃브오이다’와 같이 나타나야 할 것이나 편지 글에서는 대개 위의 예처럼 ‘-ㅎ고’가 생략된 채로 나타나며, ‘든〃반갑-’, ‘식훤깃브-’ 등 자체가 아예 하나의 복합어처럼 쓰인 듯하다. 이러한 생략 표현은 어미통합체의 생략으로 형성된 종결어미 ‘-습’, ‘-옵’과 더불어 간결한 표현을 선호하는 편지 글만의 특징적인 언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추정의 표현으로 ‘-ㄴ가 시브-’ 외에 ‘-ㄴ가 보-’, ‘-ㄹ가 보-’가 쓰인 점이 주목할 만하다. 추정의 표현인 ‘-ㄴ가 시브-’, ‘-ㄹ가 시브-’는 이미 15세기 국어에서부터 나타났지만,<sup>21)</sup> ‘-ㄴ가 보-’, ‘-ㄹ가 보-’는 19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추정의 표현이다.

- (3) ㄱ. 그러ㅎ가 보다(1-11)  
 ㄴ. 씨굿디 아니 ㅎ오신가 보오던(1-16)  
 ㄷ. 작성이 ㅁ이 임전 ㅁ던 ㅎ던가 보오니(120006)  
 ㄹ. 누리 손 붓치라 홀가 보오니잇가(120003)  
 ㅁ. 그 측냥이 이실가 보냐(120007)  
 ㅂ. 감당할 녀냥이 이실가 보옵(2-3)

한편 순원왕후의 편지에는 관용구처럼 쓰이는 특유의 표현이 있어 흥미롭다. 상대방의 안부를 물을 때 ‘염려를 덜지 못하다’의 의미로서 늘 ‘넘 브리디 못하다’, ‘답〃 브리디 못하

21) 중세국어에서는 ‘시브-’가 아니라 ‘식브-’로 나타났다는 점만이 다르다.

다' 혹은 그냥 '브리디 못하다'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 한 예이다.

## 5. 결 론

지금까지 규장각 소장본인 순원왕후의 한글 편지 2종의 서지 사항, 내용, 언어적 사실 등을 살펴보았다. 이 편지는 19세기 중엽 순원왕후가 자신의 일가, 그 중에서도 주로 재종동생인 김홍근에게 보낸 편지로서, 단순히 안부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대의 정치적 상황까지도 반영하고 있다. 19세기 전반기 세도 정치의 핵심에 있었던 순원왕후와 그 집안이 협력해 나가는 구체적인 모습, 어떠한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이전 혹은 이후에 나눈 의견 교환, 또한 철종의 옹립이라는 집안의 정치적 결정을 받아들인 후에 순원왕후가 느껴야 했던 내적 갈등과 부담감 등이 편지에 잘 드러나 있다.

국어학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두 종의 한글 편지는 연대와 필자가 분명한 필사본이고 19세기 전반기에 왕실 및 사대부가에서 사용한 언어와 편지 글 특유의 표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편지들이 쓰인 19세기 중엽은 근대국어 시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이나, 실제로 편지에 반영된 언어 사실은 표기법이나 음운론적 특징, 형태 등에 있어서 19세기 이전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많았다. 이는 궁중이나 사대부가에서 사용한 언어가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이던 언어보다 더 보수적인 경향을 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물론 순원왕후의 편지에는 19세기에 들어서서 새롭게 등장한 형태나 표현도 나타나서 19세기 국어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편지는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개인의 삶과 일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중세 및 근대 시기의 편지 자료가 많이 발굴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 성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자료가 본격적인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3),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근대국어-.
- 김일근(1986), 언간의 연구(三訂版), 건국대학교출판사.
- 민현식(1999), '개화기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개화기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서태룡(1996), '16세기 淸州 簡札의 종결어미 형태', 정신문화연구 19권 제3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현희(1994),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 1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차장범(1997), 朝鮮後期閼閼研究, 일조각.

허 옹(1989), 16세기 우리옛말본, 샘출판사.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1), 태학사.

국역조선왕조실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